

“지방선거 압승... ‘민주주의 심장’ 전남 위상 되찾을 것”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호남 중심 민주정권 창출 최우선 과제
공정한 공천 시스템... 정보 투명 공개
당원 중심 도당 운영·지구당 제도 부활
동부·서부권 상급 종합병원 모두 필요

“민주당의 본산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인 전남의 위상을 되찾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 선출된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윤석열 정권을 향한 철저한 견제를 통해 전남도당이 호남 중심 민주정권 창출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에게 향후 전남도당 운영 계획과 포부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취임 소감은.

△전남 당원 동지 여러분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신임 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부족한 저를 새로운 도당 위원장으로 선택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남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거듭 감사 말씀을 전한다.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의 도당위원장을 맡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동시에 전남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호남 정치 복원이란 결국 민주당 내에서 호남의 중요성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 국회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포함한 주요 당직과 국회 핵심 상임위에서 두각을 보이고, 현재의 민주당 지지율을 더욱 높여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총선 이상의 성과를 내야 한다. 다행히 전남의 경우 22대 국회에서 10명의 의원 중 6명이 재선 이상이고, 이미 중요 상임위의 행안위의 위원장을 신정훈 의원이 맡고 있어 호남 정치 복원의 기반은 마련됐다고 본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민주당의 본산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인 전남의 위상을 되찾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철현 의원실 제공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여수 출생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검검찰청 특수1부장검사 △광주지법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강력부장 △민선 6기 여수시장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2026년 지방선거 압승이 신임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저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2년간 치열하게 준비해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시스템 공천을 약속했는데.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이 누구나 납득하고 수용할 만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평가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데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지만, ‘선출직 하위 20% 명단’을 놓고 온갖 가짜뉴스들이 유행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전남도당의 2026년 지방선거 공천은 그런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의 문호를 활짝 열어 누구에게나 도전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약 중 지방소멸 극복과 ‘기본사회’ 시범사업 발

굴 등은 전남도 역점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데.

△도당위원장에 출마하면서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지방정부 및 의회와 적극 협력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며 당원 중심으로 도당을 운영하는 등 지구당 제도 부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회’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선거에서 ‘전남형 기본사회’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전남형 기본사회’ 공약과 관련, 기본사회 구현은 무엇보다 충분하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관건인데, 전남은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시대를 맞이해 전남이 새로운 산업을 선도하고, 그 이익을 기본사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구성하고 있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과 전남 국립대 신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은.

△지역에서는 크든 작든 서로 간의 이해충돌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의대 유치를 둘러싼 갈등 심화는 매우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전남을 방문해 전남도에 공모를 제안하며 갈등이 첨예화됐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남지역 10명의 의원이 함께 나서야 한다. 동부든 서부든 전남의 의료 여건이 열악한 것은 동일하고, 의과대학 이상으로 상급 종합병원이 동부와 서부에 동시에 들어서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일이다. 도당위원장으로 서 조속히 전남지역의 선배 동료 의원들과 깊숙이 논의하겠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는.

△도당위원장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방선거에서 압승해 차기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이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불행을 끊어내고, 민주정권을 창출할 초석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도당위원장으로서는 전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압승하고, 민주당의 본산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인 전남의 위상을 되찾을 것이다. 오지현 기자

“지역 중·고생 DJ 학습 부족... 교육·홍보 강화해야”

광주·전남김대중재단 설문조사

광주·전남·지역 중고등학생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전남김대중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김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2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43%는 TV나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교 교육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을 알게 됐다

고 응답한 학생이 20%에 불과해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남북 관계 개선, IMF 극복, 인권과 민주주의 발달 등 업적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 김 전 대통령인 것을 알고 있다는 답변도 86%에 달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삶을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3%에 불과해 학습 욕구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7%가 배운 적이 없다고 답해 학교와 연결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김대중재단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묻는 질문에 ‘존경한다’는 응답자가 36%, ‘삶을 알아보고 싶다’는 23%에 불과했다”며 “김 전 대통령의 가치와 시대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곱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